

이 자료는 2023년 6월 28일(수)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정자료



■ 매수 : 2매 ■ 사진 : 일정종료직후 제공 웹하드(press.webhard.co.kr) ID/PW:press1

담당 : 서울특별시 대변인 언론담당관

언론담당관	2133-6205	신문팀장	2133-6207	담당자	2133-6253
박 경 환		천 세 은		조 향 윤	

오세훈 시장, 서울서 열리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건축가 토마스 헤더윅 회고전 관람

- 28일(수), '헤더윅 스튜디오:감성을 빛다' 전시 참석 -

-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수) 18시 30분, 문화역서울 284(중구 통일로1)를 찾아, 세계적인 디자이너이자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의 전시, 「헤더윅 스튜디오:감성을 빛다」에 참석해 축하하고 전시작품을 관람한다.
- 토마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은 사람을 생각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시환경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이자 건축가다. 지난 4월 서울시가 주최한 「노들 글로벌 예술섬 디자인 공모 대시민 포럼」에 참석해 다양한 곡선으로 한국의 산 이미지를 형상화한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소리풍경)'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 포럼에 앞서, 서울시는 노들섬의 매력을 발굴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구상안을 제안받고자 지난해 12월 지명공모 방식으로 '노들섬 기획 디자인 공모'를 추진한 바 있다.
- 이번 '헤더윅 스튜디오:감성을 빛다'는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해 열린 전시 중 하나로, 현대미술 기획 사무소 '숨프로젝트'가 주최하고 도쿄 모리 미술관이 주관하는 행사다.

- 29일(목)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9월 6일(수)까지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토마스 헤더윅이 1994년에 설립한 헤더윅 스튜디오의 대표적인 디자인 작품 30점을 선보인다.
- 토마스 헤더윅의 디자인을 전세계적으로 알리게 된 상하이 엑스포의 'UK 파빌리온'을 비롯해 뉴욕의 인공섬 공원 '리틀 아일랜드', 세계적 기업 구글의 신사옥 '베이뷰', 새롭게 디자인된 런던의 명물 '이층버스'는 물론 최근 서울시에 제안했던 한강 노들섬 재개발 프로젝트 '사운드스케이프' 모델까지 만나볼 수 있다.
- 오 시장은 축사를 통해 '헤더윅 스튜디오'의 다채로운 작품을 통해 디자인과 건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다.

「헤더윅 스튜디오:감성을 빛다」 전시 참석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VIP 오프닝	18:30~18:4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인사 : 이지윤 (숨프로젝트 대표) ◦ 축 사 : 서울시장 ◦ 인사말 : 정병국 (문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18:40~18:5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영사 : 토마스 헤더윅 ◦ 건배사 : 영국 대사 ◦ 사진촬영
	18:55~19:15	20'	전시관람 오세훈 시장 및 주요내빈

※ 관련 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건축디자인혁신팀장 최 훈 ☎2133-7609